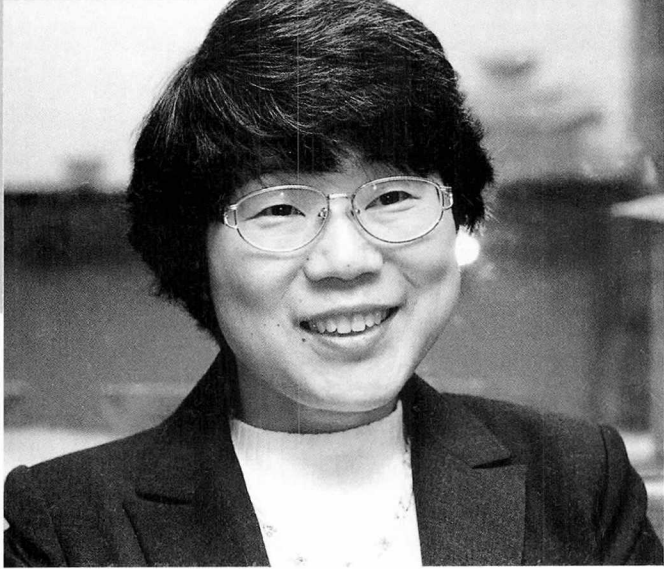


평등과 인간다운 삶 위한 여성 노동자 투쟁사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전2권)》 펴낸 이옥지 · 강인순씨



이옥지씨

그동안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정당한 평가를 받기는커녕 남성노동자들의 보조자로 간주되거나 그마저도 문혀버리기 예사였다. 현존하는 노동운동사 자료들이 대부분 남성 노동운동가 중심으로 기술됐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그렇다면 근대 이후 1백여년의 산업화기간을 거쳐오면서 여성노동자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을까.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다. 오히려 한국노동운동사가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사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은 치열했고, 끊이지 않는 투쟁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여성의 관점에서 쓴 한국여성노동자 투쟁사

최근 한울에서 나온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전2권)》는 남성노동자의 그늘에 가려진 여성노동자들의 위상을 오롯이 살려내 '반쪽' 뿐인 한국노동운동사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넣었다. 이 책은 여성의 관점에서 한국여성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을 기록한 것으로, 그 연대기적 자장은 192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걸쳐 있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선후배 사이인 이옥지씨(48, 사회학자)와 강인순 교수(46, 경남대 사회과학부)의 4년여에 걸친 자료발굴과 노력에 힘입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건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이 노동운동사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여성들은 열심히 투쟁했지만 남성운동가의 주변인 정도로 취급당했죠. 노동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투쟁했으나 그동안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대다수 여성노동자의 이름을 거명하고 활동을 되

그동안 한국노동운동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 책은 여성의 관점에서 쓴 한국여성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의 기록이다. 지은이들은 역사가 기록하지 않았던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사를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 시대별, 지역과 사안별로 나눠 투쟁의 역사를 구체화한다. 특히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제 몫을 찾기 위해서는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살렸습니다.”

이옥지씨의 설명이다. 이 책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회장 이철순, 이하 한여노협)와 공동으로 기획했다. 한여노협에서 김경숙 열사 서거 20주년을 기념해 1980년대 이후 여성노동자운동사를 정리하고자 제의했고, 그들이 기꺼이 집필을 맡았다. 1920년대부터 전두환 정권까지 아우른 1권은 이옥지씨가, 1987년 노동자대투쟁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다룬 2권은 강인순 교수가 정리했다. 그 과정에서 1987년의 노동자대투쟁은 1,2권을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 강교수는 노동자대투쟁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한국노동자운동사에서 노동자대투쟁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노동자대투쟁을 계기로 그동안 탄압받기만 했던 노동운동이 그 실제 위력을 증명했고, 노동조합의 조직이 합법화되면서 여성노동자운동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생존권 사수와 성차별 타파의 이중과제 제시해

일제강점기는 여성노동자운동의 태동기다. 식민자본 아래서 창출된 여성노동자들은 일제의 탄압이라는 억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도 노동운동의 싹을 키워왔다. 1919년부터 1940년 사이 여성이 참여한 노동쟁의 사례가 122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여공만 참여한 사례가 94건, 남녀가 함께 참여한 사례가 28건일 정도다. 그후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의 질곡을 지나오면서 여성노동자운동은 보수적인 국가권력의 탄압을 받기도 했지만 그 흐름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왔다.

“1960년대의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어용노조의 조직적 한계를 거쳐, 1970년대 이르러 노동운동은 다시 맥을 이어갑니다. 수출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정책 때문이었죠. 유신독재체제 아래서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여성사업장을 중심으로 노동조건 개선이나 민주노조 설립을 위한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씨는 특히 1970년대가 두 열사의 죽음으로 노동운동의 문을 열고 닫게 되는 뼈아픈 시기였다고 말한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피

복노조를 이끈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이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며 스물한살의 나이에 분신했다. 당시 평화시장 2천 7백여 노동자들은 하루 14~16시간 작업에 시달리며,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임금으로 하루 종일 굶고 일하기 일쑤였다.

이 시기에 이르자 여성노동자운동도 조직적으로 전개돼 동일방직과 한국모방 노동운동을 이끌어온 섬유업체와 제약업체들이 민주노조로 전환했고, 신생 전자업체들도 대거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YH무역 노동자 김경숙의 투신은 유신 말기인 1979년 8월 11일에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10월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면서 유신체제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다. 기존의 노동운동이 열악한 작업환경과 비인간적인 노동통제로부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시기부터는 그동안 생존권 투쟁에 밀려 간과됐던, 여성의 특수한 노동환경인 모성권 무시와 성별 차별임금에 저항하는 투쟁이 이어진다. 이 시기를 전후해 여성노동자들은 비로소 여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고, 여성운동단체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노동운동을 조직화할 수 있었다.

여성노동자들의 주제적 자각 필요해

이 책에서 지은이들은 정치·경제적 지표에 따라 다양하게 변모해온 노동환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표를 활용한다. 또 각 시대별, 지역과 사안별로 나눠 투쟁의 역사를 구체화한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운동의 전모를 실증적으로 파헤치는데, 지은이들이 제조업 분야에 주목한 데는 경공업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에 대한 선행연구와 자료가 부족해 그들의 작업은 어려움도 많았다.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각종 신문과 잡지, 연감 등 노동관련 자료들을 샅샅이 훑고, 좀더 생생한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했거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직접 만났다. 지은이들의 남다른 열정은 1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책의 분량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자료들은 컴퓨터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나



강인순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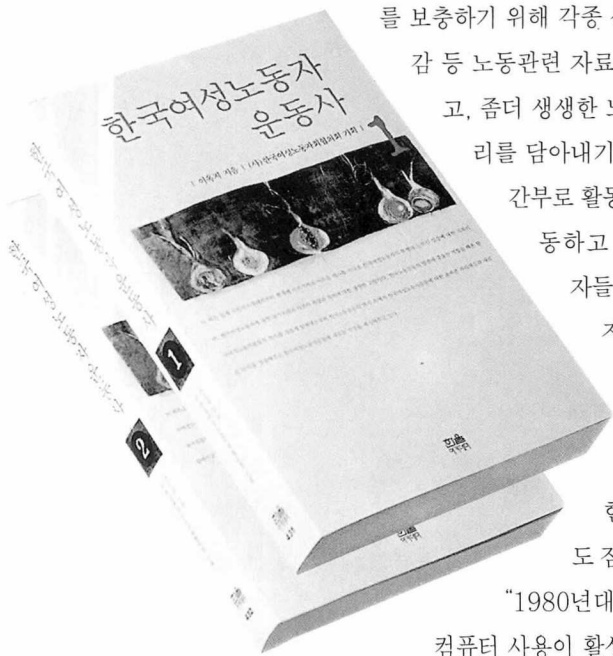
해방전후의 자료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연구서나 논문들에 기댈 수밖에 없었죠. 숨어있는 투사를 발굴해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뿌듯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힘만으로 다 기록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아요.”

그들은 책을 출간한 이후에 오히려 마음이 심란하다. 빠뜨렸을지도 모를 노동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려서다. 그것은 이 책의 지향점이 여성 ‘노동운동사’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운동사’를 살펴보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지은이들이 여성노동자운동의 이념적 목표로 본 건 ‘평등’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다. 이 지표가 노동자운동이 시작된 지 80여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은이들은 말한다.

“그동안 여성노동자운동은 계급적 불평등 극복이란 측면에선 일관된 성과를 획득해왔습니다. 하지만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는 미흡했죠. 물론 열악한 노동조건 아래서 성문제가 차선으로 밀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운동가나 여성노동자들 스스로 성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에 여성노동자운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강교수는 특히 남성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제 몫을 찾기 위해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노동조합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여건은 나름대로 확보가 됐지만, 그것이 정책을 통한 실생활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참여를 통한 법 개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IMF 이후 몰아친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최근의 노동운동은 점점 더 조직화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여성노동자운동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합니다. 여성의식과 노동의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구요. 무엇보다 여성들의 주제적인 자각이 중요합니다. 여성노동자운동의 전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박옥순기자



한울/A5신/588면 내외/25,000원 내외